



이천수, 전남과 계약

연봉 2억원대 초반 수준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공격수 이천수(28)와 마침내 연봉을 계약했다.

전남 구단은 13일 "이천수와 지난주 연봉에 대해 합의를 봤다"면서 "팀 내 상위 수준의 액수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천수는 지난 2월 전남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연봉을 백지위임했고 전남은 그동안 이천수의 팀 기여도와 경기력 등을 평가, 이천수 에이전트와 연봉액을 조율한 끝에 최근 합의를 이끌어냈다.

전남은 정확한 연봉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2억원 대 초반 수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 전남 단장이 애초 "이천수에게 3~4억원의 연봉을 줄 수 없다. 국가대표급 수준이 된다면 2억5천만원 정도는 줄 용의가 있다"고 밝힌데다 이천수가 시즌 초반 '주먹 감자 육살'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도 있기 때문이다.

전남 구단 관계자는 "이천수가 전남에서 상위 레벨의 연봉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연봉도, 광택회 이상의 연봉을 받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해도 전남은 이천수의 활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항서 전남 감독은 "이천수가 잘 적응하고 있고 올 시즌 4골을 넣으며 팀에 기여한 면이 있다.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은 이천수가 6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끝나고 나서 지난 4월26일 복귀전을 치른 수원 삼성과 원정경기에서 4-1 대승을 거둔 것을 계기로 상승세를 탔다. 이후 정규리그에서 한 때 4연승을 달리며 리그 5위까지 강종 뛰어올랐다.



14일 경기도 파주NFC에서 열린 국가대표축구팀 훈련에서 박지성과 박주영이 패스훈련을 하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성 "남아공이 마지막 무대"

내년 월드컵 후 국가대표팀 은퇴 시사 "목표는 16강...강팀과 경험 쌓아야"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이 마지막 월드컵 본선 출전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지성은 14일 경기도 파주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남아공월드컵이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성은 "2014년이면 전세계 살인데 더 뭘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그때까지는 체력이 버텨주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남아공월드컵 때 내가 할 수 있을 것을 모두 다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남아공월드컵이 축구인생의 전성기에 치르는 대회인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가"라는 물음에는 "개인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목표인 16강 진출을 위해 경기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100% 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은 "남아공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현실적인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16강이다"라고 대답했다.

2002 한일 월드컵과 2006 독일 월드컵에 이어 개인적으로 세 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된 박지성은 "2002년 대표팀은 워낙 강했다."

어린 선수들과 선배들의 조화가 잘 이뤄졌는데 이번 대표팀도 그때와 닮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독일 월드컵을 통해 월드컵 대회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남아공 대회에서는 이전 월드컵과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박지성은 남아공 월드컵에 앞서 세계적인 강팀들과 평가전을 통한 경험 쌓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표팀의 상대는 아시아 국가들이었다. 세계적 강팀이 없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강팀이지만 세계 무대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월드컵과 같은 큰 무대에서 활약하지 않고 우리 기량을 보여주려면 준비를 잘 해야 한다. 강팀과 붙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이란 원정경기를 앞두고 이란의 미드필더 자바드 네쿠남(오사수나)이 "아자디 스타디움은 한국에는 지옥이 될 것"이라고 하자 "지옥이 될지, 천국이 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응수했던 박지성.

그는 17일 이란과 최종예선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당시 기어를 때려며 "우리는 이미 본선 진출을 확정지어 여유가 있지만 이란은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란이 천국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상대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프로스포츠 한국인 최고의 몸 값은?

유럽 축구계는 아직 시즌을 맞아 '돈 잔치'가 한창이다.

특히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명문 클럽인 레알 마드리드가 사상 최고인 8천만 파운드(한화 약 1천644억원)의 이적료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안겨주고 특급 골잡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4)를 데려가기로 하면서 프로 선수들의 몸값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졌다.

그렇다면 국내의 프로스포츠에서 뛰고 있는 한국인 중 가장 많은 돈을 받는 이는 누구인가.

현재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이승엽(33·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연봉 킹'이다.

드, 한화로 환산하면 53억8천만원 가량이 된다.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인 박찬호(36)는 올 시즌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1년 계약하면서 기본 연봉 250만달러(한화 약 31억원)를 포함, 최고 500만달러(한화 약 62억원)를 받기로 했다. 500만달러는 선발투수로 뛰었을 때 출장 경기수(11~27경기)와 투구 이닝(170이닝)에 따라 각각 받는 보너스를 다 합친 최대치다.

박찬호는 올 시즌 개막 직전 팀 제5선발로 낙점받았던 7개팀에 선발로 등판, 1승1패 평균자책점 7.08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뒤 불펜으로 내려간 상태다.

이승엽 76억 '킹'...박지성 주급 1억원 박찬호, 2001년 텍사스와 연봉 169억

이승엽의 올해 연봉은 6억엔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현재 환율을 적용, 한화로 환산하면 약 76억8천만원이다. 이승엽은 지난해 부진에도 불구하고 팀내 최고 연봉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인 최초 프리미어리거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그 뒤를 쫓고 있다.

맨유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영국 언론은 박지성이 주급 5만 파운드(약 1억원)를 받고 맨유에 4년 더 남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박지성은 맨유와 2009-2010 시즌까지 계약한 상태다. 이대로 재계약이 이뤄진다면 박지성의 연봉은 260만 파운드

국내 프로스포츠에서는 프로농구 원주 동부의 김주성(30)이 연봉 7억1천만원으로 '연봉 킹'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프로야구 양준혁(40·삼성), 손민한(34·롯데), 김동주(33·두산) 등 3명이 나란히 연봉 7억원으로 뒤를 달리고 있다.

현역 및 은퇴선수를 통틀어 역대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던 한국 선수는 누구일까.

2001년 텍사스 레인저스와 5년간 6천500만달러(당시 환율로 한화 약 845억원) 조건으로 계약했던 박찬호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매년 약 169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이 기록은 앞으로 깨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한국 아르헨에 역전패 '하이킥' 크로킥 TKO승 월드리그국제배구 1승1패 美 종합격투기 UFC 복귀전

한국 남자배구가 2009 월드컵 국제배구 대회 두 번째 경기에서 아르헨티나에 아깝게 역전패했다.

김호철(현대캐피탈) 감독이 이끄는 배구 대표팀(세계랭킹 18위)은 14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월드컵 B조 예선 2차전에서 세계 랭킹 12위 아르헨티나와 플레이를 접전을 벌였으나 2-3(25-21 21-25 25-19 20-25 12-15)으로 분패했다.

예선 전적 1승1패를 기록한 한국은 승점 1점을 추가해 3점을 확보했다. 세르비아(5위)와 프랑스(17위)는 아직 한 경기만 치른 상태로 프랑스가 승점 3점을 얻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세트스코어 3-0, 3-1로 이기면 승점 3점, 3-2 이기면 2점을 얻는다. 2-3으로 진 팀에게도 승점 1점이 붙어 간다. /연합뉴스

'하이킥의 달인' 미르코 크로킥(34·크로아티아)이 미국 종합격투기 UFC 복귀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크로킥은 14일(한국시간) 오전 독일 쾰른 랑세스아레나에서 열린 'UFC 99' 대회에 출전해 무스타파 알 투르크(35·영국)를 1라운드 3분6초 만에 TKO로 꺾었다.

2007년 9월 최 콩코(34·프랑스)에게 판정패하고 나서 1년9개월 만에 육탄전(철창 팔각각)에 오른 크로킥은 이번 UFC 복귀전 승리로 건재를 과시했다.

크로킥은 2007년 프라이드에서 UFC로 이적해 1승2패의 초라한 전적을 거둔 뒤 지난해 2월 일본 격투기 '드림'으로 옮겨다다 갔다. 크로킥의 격투기 통산 전적은 25승2무6패. /연합뉴스

15일(월)
▲NBA 파이널 5차전 (올랜드 : LA레이커스)(09 : 00·MBCSPN)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동성고 : 강릉고)(12 : 50·Xports)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 결승 (고려대 : 대교농높이) 2009 WK리그 (대교 : 서울시청)(18 : 50·KBSN SPORTS)
▲컨페더레이션스컵 (브라질 : 이집트)(22 : 50·SBS스포츠)

부동산경매의 성공투자는 —
한국경매 한국법률경매(주) ☎ 062) 225-1688 H.010-3565-2888
* 위치 : 지산동 법원 버스정류장 앞 * 무료주차시설 원비

잠깐!! 경매입찰 대리업무는 공인중개사로서 법원매수신청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법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순회배상책임보험 1억원 가입업체) * 투자자실 분 및 재테크상담 대환영

지역	소재지	면적	층수	감평가	최저가		
서울	금호동 동원아파트	23	18/12	9300만	8500만		
	종로동 대우파크빌2차	46	17/8	1억8500만	1억2900만		
	차림동 금호타운	33	17/1	1억2300만	8600만		
	동대문동 새마을신시빌	33	18/4	1억4500만	1억1100만		
	차림동 금호성원	52	17/11	2억4000만	1억8200만		
	화랑동 화랑주공	16	5/1	6300만	4400만		
	차림동 리안타워	25	20/20	8300만	6500만		
	진빌동 힐튼메리	31	15/14	8400만	5880만		
	백운동 사옥스카이	32	15/9	9000만	6900만		
	동신동 라인	32	25/22	1억1000만	7700만		
남부	송파동 금호타운	31	20/1	9000만	6900만		
	동신동 라인아파트	32	25/22	1억1000만	7700만		
	동신동 솔리텍스케이프	62	20/19	2억8000만	1억9600만		
	운정동 리안타워	31	18/1	1억1000만	7700만		
	지산동 삼성아파트	32	15/11	9400만	8600만		
	지산동 삼성아파트	46	15/2	1억5000만	1억5000만		
	운정동 리안타워	50	11/3	1억4500만	1억1100만		
	용문동 대우파크빌2차	33	13/6	1억3500만	9400만		
	동대문동 롯데나인스	33	14/5	1억7000만	1억1900만		
	강화동 금호아파트	31	14/4	9000만	6300만		
대구	동대문동 미라보3차	33	20/14	9000만	6300만		
	매곡동 삼인아파트	32	20/9	8200만	5700만		
	운정동 현대아파트	43	15/15	1억2300만	8600만		
	북구동 현대아파트	47	18/3	1억9000만	1억3300만		
	매곡동 삼성아파트	32	20/5	8000만	5600만		
	동대문동 삼성아파트	47	20/17	1억2500만	8750만		
	운정동 현대아파트	43	15/3	1억2000만	8400만		
	우산동 주공아파트	26	20/9	6300만	4400만		
	산성동 해방삼거리	34	15/12	1억3500만	9400만		
	월계동 현대아파트	34	15/14	1억2800만	8900만		
부산	월계동 현대아파트	34	15/14	1억2800만	8900만		
	신정동 호반메트로2차	34	24/12	1억6000만	1억1200만		
	월계동 현대아파트	34	15/14	1억2800만	8900만		
	월곡동 현대아파트	33	15/12	7000만	4900만		
	지역	소재지	면적	층수	감평가	최저가	
	북부	오치동(오치동성당부근)	46/58	1억3000만	7200만	2층주택	
		누른동(북성리마을)	67/65	2억1200만	1억1900만	2층주택	
		용문동(하이아파트 옆)	46/59	1억1400만	6400만	2층주택	
		두림동(두림초교부근)	38/51	1억	7000만	2층주택	
		북운동(북운동초교부근)	43/40	8600만	4800만	2층주택	
월산동(북성리마을)		44/44	1억	6800만	2층수리완료		
백운동(수곡아파트)		38/43	9800만	5380만	2층주택		
월산동(삼아아파트부근)		34/37	7700만	4300만	2층주택		
나주 성북동(성북동사우소)		52/92	3억1300만	2억1900만	3층(신축)		
남평동(광이리)		87/23	3600만	2000만	단층농가주택		
중부	주월동(백운광장도로부근)	124/294	11억3000만	7억8000만	4층빌딩		
	월산동(동신(쌍방울)영양)	124/371	10억8500만	3억1000만	5층(목욕탕)		
	관산 월곡동(하이아파트건너편)	145/313	9억1400만	5억1200만	4층(신축)주택		
	북구 오치동(오치사거리교차)	268/670	22억	11억2800만	7층학원상가		
	지역	소재지	면적	층수	감평가	최저가	
	남부	용문동(용문마을인근)	는	907	6300만	4400만	
		관산구 도산동(송정초교부근)	는	4412	20억8600만	11억7000만	
		두정동(두정마을)	은	13860	4억5800만	2억5000만	
		남구 송촌동(송촌마을)	는	1195	9900만	6900만	
		관산구 석곡면 유정리(유정마을)	는	889	2000만	1100만	
장성군 안평면 송산리(송산마을)		는	807	8800만	6100만		
통정면 월산리(월산마을)		는	749	6200만	3470만		
영광군 법성면 대덕리(북동마을)		는	2225	4400만	2470만		
홍농읍 가곡리		는	1837	4000만	2200만		
지역		소재지	면적	층수	감평가	최저가	
대전	불광동 문곡리	과수원	3127	2억1700만	1억5000만		
	세지동 송재리	밭	168	740만	500만		
	세지동 불곡리(송재마을)	는	1210	4000만	2800만		
	봉양면 문곡리(누실마을)	는	363	1200만	880만		
	불광동 문곡리(마음마을)	밭	3127	2억1700만	1억5200만		
	대기동(가평마을)	과수원	1948	9650만	4300만		
	불광동 신동리(두울마을)	는	907	3800만	2500만		
	봉양면 송재리(산정마을)	는	615	1750만	1200만		
	동북면 일영리	밭	1651	4280만	2380만		
	한림면 월리(정동마을)	목장	1404	2억6200만	1억1700만		
충청	도곡면 한양리(도곡온천)	다지	1359	6억7400만	3억7700만		
	남면 안말리	는	1168	3000만	2100만		
	지역	소재지	면적	층수	감평가	최저가	
	충청	보령동(그린드림부근)	182/327	6층	12억2500만	6억8800만	
		서구 금호동(서구문화센터부근)	101/343	6층	13억4000만	7억5000만	
		화양동(동양나리부근)	100/435	7층	14억5000만	10억	
		북구 현충동(충선실업건너편)	410/871	8층	33억	14억7000만	
		중충동(진남일보부근)	120/403	6층	13억	4억8500만	
		지역	소재지	면적	층수	감평가	최저가
		전남	금성면 병사리(금성농공)	1532/277	2층	6억7800만	3억7900만
장성군 진평면 석리(면소재지)			346/253	2층	7억4000만	4억1900만	
지역			소재지	면적	층수	감평가	최저가
전남			금성면 병사리(금성농공)	1532/277	2층	6억7800만	3억7900만
	장성군 진평면 석리(면소재지)		346/253	2층	7억4000만	4억1900만	
	지역		소재지	면적	층수	감평가	최저가
	전남		금성면 병사리(금성농공)	1532/277	2층	6억7800만	3억7900만
			장성군 진평면 석리(면소재지)	346/253	2층	7억4000만	4억1900만

[주]한국경매는 고객님의 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성탈모, 무모 이제 고민 끝!
여성전용 먹는 탈모제품의 특징

- 몇일만 먹어도 머리가 빠지는게 멈추고
- 머리가 굵어지며 풍성해지고
- 새로나는 머리가 힘있게 올라오고
- 피부 트러블이 완전히 사라지고
- 배꼽아래 무모가 풍성해진다.

1개월내 효과 없을시 전액 환불!!

여성 탈모의 원인은 모낭의 영양결핍
남성 탈모의 원인은 모낭의 위축
원인을 알면 답은 간단합니다

이제 고민 끝내십시오!!!
상담전화 02)2677-0231-2/010-3518-8995
글로벌 농협 569-12-034626(배의자)

강한 남자로 만드는 센-놈

사람의 몸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며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퇴화됩니다.
이 세상에는 절절과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건강과 감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있어 희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시 유희 속으로 지
속적이고 반영구적으로 감편하며 그녀가 선호하는 강한 사
내로 변신 할 수 있는 신제품입니다.

상담전화 070-7786-8710/070-7786-9710
농협 569-12-034626(배의자)
서울 영등포 6가 11번지 영원 B/D 310호 글로벌테크